

# 국가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 — 6월 18일 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 ◎

공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보호사업은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사회적권리와 자유를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여 그들이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장애인보호사업은 7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 발표하신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제 18조에서 로동으로 인한 부자유와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해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제시하시어 장애인보호사업의 시초를 열어놓으셨다. 주체37(1948)년 2월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조선민주맹인동맹이 결성되었다. 주체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에는 장애인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것이 공화국정부의 시중일관한 시책이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련한 전라도의 나라 조국을 지켜 몰바쳐 싸우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도록 하시였으며 전국에는 전쟁시기 부상당한 인민군대, 경비대 및 유격대원들과 적들의 만행으로 부자유가 된 애국자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에게 기술기능에 대한 직업교육을 주기 위한 영예군인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주체48(1959)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룡아학교와 맹학교를 세워주시었다. 결과 장애인들도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장애자들에 대한 무료교육의 혜택은 맹학교나 룡아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화국에는 사회에 진출한 장애인들에게 기술교육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자기능공학교, 설계원양성과 같은 직업학교들도 곳곳에 있다. 공화국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 한치의 간격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 모두가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본인이 원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자기능공학교, 설계원양성과 같은 직업학교들도 곳곳에 있다. 공화국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 한치의 간격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 모두가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본인이 원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자기능공학교, 설계원양성과 같은 직업학교들도 곳곳에 있다. 공화국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 한치의 간격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 모두가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본인이 원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자기능공학교, 설계원양성과 같은 직업학교들도 곳곳에 있다.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하여, 장애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조선장애인보호협회가 조직되었고 그에 의하여 장애인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체92(2003)년 6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교정기구공장이 현대적으로 꾸러지고 국가부

##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는 장애자들

남조선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남조선에서는 각지에서 올라온 발달장애자의 부모 2,000여 명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중 550여명이 단체식발식을 하였다. 모은 장애인부모의 대부분이 어머니였다. 녀성의 상경과도 같은 머리칼을 자르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내줄 테니 장애인 부모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절규했다. 이날 식발식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는 자제장애자인 외손주를 둔 할아버지와도 있었고 장애인 남동생을 둔 24살의 처녀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엑스레이로 찍어



## 방문기

### 교복마다에 후대사랑을 담아간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돌리고 있는 공화국의 각지 피복생산단위에서 교복생산을 계속 다그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느때없이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교복생산을 활기있게 밀고 나가고 있는 평양창랑우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안화순지배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후대들을 위한 국가적책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닿게 할 일념을 안고 교복생산을 펼쳐나선 우리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교복생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은 보고싶은 흥동을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1작업반현장에 들어갔다. 드넓은 작업장을 딱 채우고 기둥이 울리는 제복기동소리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생산속도를 높여가고있는 종업원들, 혁신의 새 소식을 전하는 속도판...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김현희작업반장은 후대들을 위한 보람찬 일을 하고있다는 긍지를 안고 교복생산을 다그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역대전을 벌이는 속에서도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매일 멀어진 교복생산계획을 이기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정을 다 합쳐도 비치지 못할 열화같은 사랑으로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돌발적인 방역위상상황으로 로력이 부족하였지만 교복생산계획을 조금도 드릴수 없다고 하면서 작업반원들 누구나 더 많은 일감을 맡아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였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학생교복이 갖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되새겨졌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당의 정책이고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맨시 있고 멋들어진 교복을 해입히실 확고한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의 교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정력으로 내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교복생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어찌 그뿐이랴.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교복생산을 중단없이 내밀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총속에 교복생산을 위한 자체보장대책이 빈틈없이 세워지고 생산활성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는것 아니라. 감동을 금치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안화순지배인은 공장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공속도를 높이면서도 교복을 보다 질 좋게 만들것인가를 놓고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한다. 그를 따라 기술진비세에 들어서니 교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색과 토론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리은복 기술진비장은 교복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교복생산을 위한 기술강습이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의 학생교복이 어떤 교복이니까, 우리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새로 만든 교복본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아주시며 교복을 성의있게 잘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입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송고한 그 뜻을 새겨안고 자신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제복마다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가는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더웠다. 이틀만이나 안었다. 공장을 돌아보면 우리는 재단품을 제때에 보장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제작한 여러가지 지류를 리용하여 가공속도를 부쩍 높여나가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학생들에게 맨시 있고 멋들어진 교복을 해입힐 일념으로 교복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이들에게는 자라나는 세세대들이 더 밝고 보란듯이 내세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송고한 뜻을 교복마다에 만발하게 꽃피워가는 《원세사》들이라.



##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의 창립

오늘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진진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해나가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독자적인 교육체계이며 과학기술과 교육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맞는 우월한 교육체제이다. 하다면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보지 못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는 어떻게 마련하였는가. 전쟁의 포화속에 산천초목도 불타던 주체40(1951)년 1월 모언을 해치시며 어느 한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형편을 상세히 료해하시고 공장의 복구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다. 이날 전쟁의 후과로 관리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지휘부인 인민군과 관련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자체로 관리간부들과 기술자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공장대학을 내오면 로동자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밤에는 학교에서 일만치 공부할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생산에서 리활함이 없이 누구나 다 배울수 있다고 훌륭히 기술자로 될수 있다고 하시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보지 못했던 공장대학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공장의 복구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비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대학의 성격을 밝히주시였으며 전선에서 소환되는 대학생들을 먼저 공장대학에 파견해주시는 조치도 취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가련히철한 전쟁이 벌어지던 주체40(1951)년 7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었던 첫 공장대학이 창립되게 되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 확립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 태어난 첫 공장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를 확대발전시키시어 수많은 근로자들을 창조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시었다. 본보기자 림광훈

## 로동당세월이 좋아 장수복 누리갑니다

저는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열마전에 백번째 생일을 맞은 개천시 군우동 제4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방정숙입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백성으로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리얼한 보탬을 주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오래 살고있는것만도 이를나위없이 고마운데 전인민적인 방역대전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백번째 생일을 맞고보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 약성전병원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백만명의 소중한 생명을 사정없이 앗아가고있습니다. 그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근로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은 엄격한 방역위상상황에서도 오�히려 장수자들이 늘어나는 민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있습니다. 세상사람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현실을 어찌 하늘이 주는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무병무탈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는 어머니당의 은총속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력사에 튼튼한 사랑의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날에는 늘 받아안으면서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오느처럼 어려운 상황속에서 매일, 매 시각 뜨겁게 받아안고있습니다. 사랑은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불을 달아주고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불사약입니다. 그 말의 참뜻을 저는 열병으로 심하게 앓으면서 페

부로 절감하였습니다. 자고로 로한무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늙어서 생긴 병에는 고칠 방도가 따로 없는데 말이 잇듯이 병에 차도가 없게 되자 이전 나이가 많으니 할수 없다고 맥을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을 안고 매일같이 호담당의사가 찾아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온갖 성의를 다해 치료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인민반사람들, 동사무소일군들이 갖가지 보약과 영양식품, 부식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감동깊은 광경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 있어 저는 마침내 병을 털고 일어날수 있었습니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준비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대학의 성격을 밝히주시였으며 전선에서 소환되는 대학생들을 먼저 공장대학에 파견해주시는 조치도 취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가련히철한 전쟁이 벌어지던 주체40(1951)년 7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었던 첫 공장대학이 창립되게 되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 확립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 태어난 첫 공장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를 확대발전시키시어 수많은 근로자들을 창조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시었다. 본보기자 림광훈